

# 동아시아 국가에서 세계화와 타자의식\*

김 경 일\*\*

- 
- |                       |               |
|-----------------------|---------------|
| I. 머리말                | IV. 개방성과 타자의식 |
| II. 동양과 서양, 동아시아의 단일성 | V. 맺음말        |
| III. 세계화와 국제주의        |               |
- 

## I. 머리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나 상식이 과학적 지식을 확증하기도 하고, 거꾸로 그것에 의해 강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널리 알려진 통념 중의 하나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대립적인 사고방식과 가치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양적 사고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데 반해 서양에서는 자연에 대한 정복을 강조해 왔다거나 또는 동양이 집단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데 반해 서양에서는 개인의 자유나 존엄을 중시해 왔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위계 대 평등, 停滯와 진보, 감성 대 이성, 본능 대 합리성, 개인의 사적 지배 대 몰개성적 법의 지배 등에서 보듯이 각각 동양과 서양에 대응하는 수많은 이분법의 대립 개념에 우리는 익숙해 왔다.

---

\* 이 글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 전공의 은기수 교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논문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 준 논평자에게도 아울러 감사드린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

이와 같이 동양과 서양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은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지만 특히 그것이 구체화된 계기는 19세기 후반 이후 아시아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는 서구의 동양에 대한 식민주의적 언설이나 또는 그것을 내재화한 동양인들 스스로의 자의식을 통해 형성되고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그것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검증되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당연한 믿음의 형태로 대중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자면 동양과 서양에 대한 무수한 짝 개념의 대비는 각 사회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할 역경, 또는 일종의 신화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양과 서양의 대립 담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또 다른 개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최근 우리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이다.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는 그것의 실체와 역사 그리고 의미와 전망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그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sup>1)</sup> 이러한 비판 가운데 주요한 하나는 마치 동양이나 서양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러하듯이, 그것이 동아시아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과 인종, 계급 등의 차이와 차별을 무시한 채로 동아시아를 일종의 단일한 전체(monolith)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한다. 하나는 동양과 서양에 대한 통념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가 과연 단일하고 통일된 하나의 실체로서 파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이와 같이 상호 연관된 두 개의 믿음이 지지될 수 없으며, 그것은 그 사회가 속한 구체적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 조사를 통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자료로는 1981년 이래 전세계 6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세계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1981-1982, 1990-1991, 그리고 1995-1998년의 세 차례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자

---

1)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문학과지성사, 1995);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문학과지성사, 2000); 김정일, 『동아시아와 세계 체제 이론』,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문화과학사, 1998).

료는 마지막의 1995-1998년에 수집되었다<sup>2)</sup> 이 조사는 미국 미시간대학의 잉글하트(Ronald Inglehart)와 독일의 클링거만(Klingerman)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미시간대학의 대학간 정치사회연구연합(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의 조사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다.<sup>3)</sup>

1995-1998년의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조사된 나라 가운데 이 글의 연구대상으로는 한국과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서독의 6 개국을 선정했다 원래는 동아시아 국가로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을 함께 분석하려고 했으나 원조사에서 빠져 있어 동아시아 국가로는 한국과 대만, 중국, 일본의 4 개국을 선정했으며, 미국과 독일은 이들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 선정했다. 처음 계획은 미주에서 미국을 선택하고, 유럽에서는 앵글로색슨의 미국과 대조되는 프랑스를 고르려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원조사에서 빠져 있어 독일로 대신하기로 했다.<sup>4)</sup>

제3차 세계가치관조사는 세계 50 개국을 대상으로 220 여 개의 항목에 걸쳐 조사를 수행했는데, 이 글에서는 먼저 동서양의 대비를 전형적으로 보이는 4 개의 문항과 아울러 외국이나 개방화, 세계화와 국제주의와 관련된 7개의 설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국가별 단순 빈도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다분히 탐색적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성이나 연령, 교육, 계급 등의 하위범주 가운데 몇몇 설문에 한해서는 연령에 따른 의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해당 설문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볼 때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해석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인 6 개국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논문 말미에 부표형태로 첨부해 두었다.

세계가치관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는 표준화된 조사문항을 역사와 문화가 다른

2) 한국에서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는 1990-1991년도의 자료로 한국, 일본, 미국 멕시코의 4 개국을 비교 연구한 어수영, 『가치변화와 삶과 정치 - 한국·일본·미국·멕시코 4개국 비교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가 현재로는 유일하다

3) 1995-1998년의 제3차 조사에 참여한 50개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Ronald Inglehart, "Globalization and Postmodern Values," *The Washington Quarterly*, 23-1(2000), p. 23 참조. 아울러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세계가치관조사의 웹사이트(<http://wvs.isr.umich.edu>)를 참조할 것.

4) 구체적인 조사 시기를 보면 한국은 1995년 12월말부터 1996년 1월초, 대만과 일본, 미국은 1995년, 중국은 1996년, 그리고 독일은 1997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가들에 적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개념이나 표현이 각기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 장에서 보듯이 자연과 인간 사이에 자연을 중시한다고 답했을 때, 자연의 의미가 한국이나 중국, 미국, 독일 등에서 동일하게 인식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을 비문명적인 상태로 인식하는 경우와 환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사회에서 자연에 대한 중시 정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이라는 언어에 함의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설문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내용을 묻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 II. 동양과 서양, 동아시아의 단일성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적 대조로서 흔히 언급되는 것들 중의 하나는 전통과 기술의 각각을 동양과 서양에 고유한 속성으로 파악하는 방식일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전통과 기술의 양자 선택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sup>6)</sup>에 대한 의견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는 대략 4 대 6 정도로 전통보다는 기술에 대한 선호가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은 전통에 대한 지지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한국과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대

<표 1> 고도의 기술과 전통에 대한 선호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전통	466 (37.8)	229 (35.3)	141 (10.5)	464 (66.4)	803 (61.5)	378 (43.0)
기술	766 (62.2)	419 (64.7)	1208 (89.6)	235 (33.6)	503 (38.5)	502 (57.1)
계	1232(100.0)	648(100.0)	1349(100.0)	699(100.0)	1305(100.0)	880(100.0)

5)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항목에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따로 지적해 두었다.

6) 각각의 주장은 “고도의 기술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전통보다는 고도의 기술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적으로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로 6대4의 비율 정도로 기술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같은 서양에 속하는 독일에서는 오히려 전통보다는 기술을 중시하는 의견이 57% 정도의 비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동양권에 속하는 한국과 대만은 전통보다는 오히려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서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은 반대로 기술보다는 전통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구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전통보다는 기술을 중시하는 의견이 더 많아 일반적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례는 중국과 일본인데,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중국은 전통보다는 기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데 반해, 일본은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술보다는 전통에 대한 지지가 전체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동양과 서양에 전통과 기술을 이분법적으로 대비시키는 통념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만 조응할 뿐 한국이나 대만,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의 이른바 서세동점 이래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국은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서구의 발전된 기술문명과 접합시키는 공동의 과제에 직면했다. 東道西器나 中體西用, 和魂洋才 등의 표어에서 보듯이 이들은 자국의 정신과 전통을 바탕으로 서구의 발전된 기술을 수용하기를 원했지만 이후의 역사적 궤적이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흐른 것만은 아니었다. 개략적으로 보더라도 이후 3국은 근대로 상징되는 서구문명 수용의 커다란 조류에 휩쓸렸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1930년대 들어와 전통에 대한 재인식의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 시기에 대륙침략을 위한 일본제국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의 필요에서 일본적 전통에 대한 대대적 부흥의 캠페인이 있었다.

1945년의 해방과 종전 이후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서구 근대기술의 수용으로 다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패전과 전후복구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것 일본적인 것이 과시즘과 군국주의로 연결되면서 1970년대 이후 전통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기까지 전통에 대한 관심은 역사의 저변으로 잠복했으며, 한국은 미군정의 실시와 원조경제를 배경으로 아메리카니즘의 물결과 서구문명의 세례로 빠져들었다. 1970년대 들어와 10월유신과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전통의 부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위로부터의 기획에 의한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분히 복고적이고 반동적인 색채를 띠었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의 문화대혁명에서 보듯이 대중동원을 통해 중국적 전통과 이념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의 환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이후 정세에 따라 이념(紅)과 기술(專)의 양자에 대한 강조가 부침을 거듭하다가 1980년대 이후의 개방경제에서 근대적 기술의 도입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전반적 물결에서 이들 3국은 동기와 정도는 다소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시 전통에 대한 재해석과 관심으로 쏠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3국은 각자가 걸어온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필요에 따라 전통과 기술의 양자에 서로 다른 비중과 의미를 부여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기술 도입이 시급한 중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1995년의 시점에서 산업발전의 단계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대만은 자신의 전통보다는 서구의 발전된 고도의 기술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하이테크 산업과 첨단기술이 발전한 일본은 미국과 비슷하게 전통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잉글하트 등이 기술발전에 대한 강조를 생존적 가치로, 전통에 대한 관심을 자기표출(self-expression)의 가치로 분류해 영어권과 프로테스탄트 유럽권에서 후자의 가치가 우세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sup>7)</sup>은 흥미롭다.

어쨌든 위의 분석은 우리에게 동양과 서양의 각각에 전통과 기술을 조응시키는 일반적 통념은 지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에 대한 높은 지지와 중국에서 기술에 대한 압도적 강조가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동일한 동아시아권(혹은 유교권)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과 가치의 차이와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과 전통에 대한 중국과 일본에서의 의견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권보다는 오히려 영어권의 미국에 더 접근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동양과 서양의 대비에서 흔히 등장하는 인간과 자연의 쟁점을 검토

---

7) Ronald Inglehart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2000), pp. 26 ~29.

해 보기로 하자. 아래의 <표 2>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은 자연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는 양자택일의 주장에 대한 선택을 보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대체적으로 보아 어느 나라이건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의견의 비중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정보보다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인간	109 (8.7)	80 (10.5)	539 (41.0)	19 (1.9)	187 (12.7)	45 (4.5)
자연	1138 (91.3)	679 (89.5)	775 (59.0)	995 (98.1)	1290 (87.3)	957 (95.5)
계	1247(100.0)	759(100.0)	1314(100.0)	1014(100.0)	1477(100.0)	1002(100.0)

동양에서는 자연에 대한 공존의 태도가 우세하고 서양에서는 자연에 대한 적극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주장은 아마도 동서양의 사고에서 가장 오래되고 익숙한 대비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일정 시점 예컨대 산업혁명기의 서구와 아직은 미개했던 동양을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한다면 모르되 적어도 1995년의 시점에서 세계는 바야흐로 인간은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는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sup>8)</sup>

위의 표에서 보자면 산업화의 역사가 오래된 독일이나 일본에서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주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미국은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보다도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전통적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사고방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정작 그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자연과의 공존이나 조화보다는 근대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과제와 관련해 자연에 대한 착취적 태도가 필요한 여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대비가 더 이상 유효하지

8)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설문은 자연이라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이 발달한 선진사회에서는 친환경적인 응답의 비율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않으며 또한 중국의 사례가 보이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의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표 3>을 보면 이러한 중국에서조차도 그러한 가치가 점차 자연과의 공존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 듯하다.<sup>9)</sup> 이 표에서 보듯이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의 이른바 선진공업국에서 이 문항에 대한 세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상당한 세대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대와 5,60대 세대가 10% 정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에서의 그것은 거의 20%에 이르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3>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의 세대별 비율(%)

연령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20대	94.7	65.2	99.4	85.3	95.3
30대	92.3	61.6	98.4	86.0	97.1
40대	90.4	56.9	98.9	87.6	97.1
50대	84.2	49.3	95.0	89.5	94.3
60대	85.9	46.6	98.4	88.4	92.6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는 것과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태도의 대비 역시 동서양 사고방식의 중요한 차이의 하나라고 생각되어 왔다. 아래의 <표 4>는 대인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두 주장에 대한 설문 결과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대체로 보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독일과 한국에서 많은 반면, 대만과 중국, 미국은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높게 나타난다.

9) 대만의 경우는 전체 표본에서 일부만 조사되어 전체 세대에 대한 수치가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제외했다. 이하 <표 10>과 <표 15>도 마찬가지이다



<표 4> 대인관계에 대한 의견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타인	1020 (81.9)	542 (73.6)	1001 (76.0)	775 (77.9)	1086 (74.3)	793 (82.9)
자신	226 (18.1)	194 (26.4)	317 (24.1)	221 (22.2)	376 (25.7)	164 (17.1)
계	1246(100.0)	736(100.0)	1318(100.0)	996(100.0)	1462(100.0)	957(100.0)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에서이건 자신의 요구에 대한 주장보다는 타인에 대한 고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질문 자체가 현안이 되는 특정한 주제나 이해관계가 개입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성이 높은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나라와 지역을 초월한 공동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문항을 통해서도 동서양의 의견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양의 대조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경쟁에 대한 의견이다. 아래의 <표 5>는 “경쟁은 인간의 창조성을 높인다”는 의견(1)과 “경쟁은 인간의 사악함을 조장한다”는 의견(10) 사이를 10 개의 동일한 간격으로 나눈 점수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평균점수가 적어질수록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많아질수록 경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점수의 분포는 2.9 부터 4.7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보면 경쟁의 가치를 수용하면서 적극적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 경쟁에 대한 의견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응답수	1240	1418	1405	958	1502	1003
평균	4.02	3.81	2.92	4.72	3.19	3.62
표준편차	2.28	2.13	2.30	2.35	2.29	1.89

흔히 경쟁을 중시하는 서양과 대조적으로 동양적 사고방식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는 전체에 대한 배려와 순응, 혹은 인종과 같은 가치에 오히려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극적인 예를 들자면 1930, 1940 년대에 일본제국주의가 대동아공영권의 기치를 내걸고 협동과 상호부조의 동양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서구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의 덕목으로 개인주의와 함께 경쟁을 꼽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양권에 속하는 국가들은 5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그리고 서양에 속하는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5 보다 낮은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동서양의 차이보다는 같은 동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들 내부의 의견차이가 오히려 더 두드러지는 것이었다.<sup>10)</sup>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대만은 독일보다는 약간 높지만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다시 대만은 비슷한 차이로 한국과 묶일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에서 경쟁에 대한 지지 의견이 높은 것은 수긍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일본은 6 개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경쟁에 대해 유보적 내지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중국의 경우와 단적인 대조를 보인다.

동일한 동양권에서 이처럼 상이한 의견의 차이는 각 나라의 산업발전의 정도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이념의 일부인 집단적 헌신과 공동의 연대에 대한 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현실의 정당화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전체에 대한 배려와 공동에 대한 헌신이 일본적인 것, 또는 ‘일본적 미덕의 하나로 창출(invention) 되어 왔던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경우이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의 가치에 대한 높은 지지는 특히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의 도래를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95년이라면 문민정부의 세계화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와 대중매체에서 “당신의 경쟁상대는 세계의 누구입니까” 라는 구호를 신물나게 접하고 있던 시기였다.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 보자”는 지구화, 정보화의 추세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어 그것을 합리화하고 조장하기 위한 캠페인이 범사회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

10) 각 국가 사이에서 평균의 차이는 대응하는 모든 짝들에 대한 평균비교(pairwise t-test) 를 해 본 결과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세계화와 국제주의

이 장에서는 세계화나 국제주의, 대외개방성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설문 결과들을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지리적 범위나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제적 협의를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외국상품이나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의견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위에서 논의한 동서양에 대한 이분법과 단일한 실체로서 동아시아 인식의 허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분석항목이 달라지는 것을 반영해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제2장에서와 같이 차이를 직접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식보다는 그러한 차이를 전제로 하면서 개별 항목들에서 왜 그러한 차이가 야기되었는가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각 국가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태도는 아시아나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 경로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때로는 아시아나 동아시아가 공동의 단일한 지향을 보인다는 사실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현상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동양이나 서양, 동아시아와 같이 정형화된 실체에 대한 가정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가 속한 구체적인 맥락을 통해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자신이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지역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표 6>은 그에 대한 결과를 보인 것인데,<sup>11)</sup> 가장 한정된 지역적 범위에 대해 소속감을 표시한 경우는 일본이 거의 60%에 달해 가장 높았고, 대만은 20%를 조금 넘어 가장 낮았다. 대만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로서 거의 반 정도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자신이 거주하는 좁은 지리적 범위에서의 소속감이 가장 높은 반면에 국가에 대한 소속감은 20%를 조금 넘어 6 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

11) 설문은 1) 현재 살고 있는 동네, 2) 현재 살고 있는 지방, 3) 한국, 4) 동북아시아, 5) 지구촌으로 되어 있다. 영어 원문을 보면 1)은 locality of town where you live, 2)는 state or region of country where you live, 3)은 예컨대 미국의 경우 The United States as a whole, 4)는 North America, 5)는 The World as a whole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가지고 한국의 경우를 보면 행정구역상으로 1)은 구나 시, 2)는 도 정도에 대응하는 것인데, 번역이 다소 모호하게 되어 적어도 1)과 2)의 지역적 범위가 다소 축소된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 미국은 거주 동네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sup>12)</sup>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이들 두 지역이 일종의 길항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즉 좁은 지역에 대한 몰입은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감소시키거나(일본) 혹은 그 반대의 경향(대만)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독일도 일본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지역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거주 동네	512 (41.5)	288 (21.9)	590 (40.1)	588 (58.4)	486 (32.2)	430 (43.0)
거주 지방	261 (21.2)	254 (19.3)	174 (11.8)	154 (15.3)	147 (9.7)	148 (14.8)
거주 국가	416 (33.7)	651 (49.5)	578 (39.3)	235 (23.3)	606 (40.2)	274 (27.4)
거주 권역	6 (0.5)	89 (6.8)	64 (4.4)	4 (0.4)	42 (2.8)	72 (7.2)
세계	39 (3.2)	34 (2.6)	65 (4.4)	26 (2.6)	228 (15.1)	77 (7.7)
계	1234(100.0)	1316(100.0)	1471(100.0)	810(100.0)	1509(100.0)	1001(100.0)

다음에 세 번째의 거주 권역은 동(북)아시아와 북미, 그리고 유럽 등을 지칭하는데, 표에서 보듯이 이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높은 경우는 독일로서 7%가 조금 넘는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대만이 7%에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을 보였다. 독일의 경우는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통합이 가장 진전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대만의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대륙인 중국에 대한 귀속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동아시아권에 속하는 한국이나 일본의 이에 대한 소속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세계에 대한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낀다고 표현한 경우의 비율은 미국에서 가장 높아 무려 15%를 기록했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의 사고가 우세하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계제국’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자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자각적

12) 물론 한국과 대만은 국가보다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미국은 거주 지역(town)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더 크다는 차이가 있다.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것은 독일의 경우로 7.7% 를 기록했으며, 이어서 중국과 한국의 차례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강대국일수록 거주권역과 세계를 합한 지역, 즉 국가적 차원 이상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소속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범주를 합한 비율은 미국이 17.9%로 가장 높고, 다음이 독일로서 14.9%, 이어서 중화문명권에 속하는 대만과 중국이 각각 9.4%와 8.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과 일본은 3.7%와 3.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다소의 예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립된 도서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국토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다수가 세계화나 국제주의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 주제에 대한 두 번째의 조사 항목으로는 국제연합(UN)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다음의 4점 척도를 선택했다<sup>13)</sup> 아래의 <표 7>에서 보듯이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1과 2 포함)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딱 떨어져서 60%를 약간 넘기는 비율로 일본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56.3%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은 43.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제연합에서 대만이 축출되고 중국이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 7> 국제연합(UN)에 대한 신뢰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매우 신뢰	259 (20.8)	44 (3.3)	118 (10.7)	58 (7.2)	136 (9.6)	49 (5.2)
신뢰	753 (60.6)	540 (40.5)	505 (45.6)	432 (53.3)	573 (40.3)	396 (41.7)
불신	204 (16.4)	600 (45.0)	372 (33.6)	284 (35.1)	518 (36.5)	412 (43.4)
전혀 불신	27 (2.2)	150 (11.2)	112 (10.1)	36 (4.4)	194 (13.7)	92 (9.7)
계	1243(100.0)	1334(100.0)	1107(100.0)	810(100.0)	1421(100.0)	949(100.0)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만을 제외한다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국제연합에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13) 4점 척도의 내용은 1) 상당히 신뢰한다, 2) 어느 정도 신뢰한다 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중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10대를 보낸 세대< 표 8>에서 50대)에서 다소 비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문화대혁명 이후 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일본에서도 20대에서 다소 비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점은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0대 이상은 60% 이상의 신뢰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8> 국제연합(UN)에 대한 신뢰의 세대별 비율(%)

연령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20대	78.4	26.2	54.2	50.4	53.6	43.3
30대	83.3	34.5	58.7	63.7	63.6	43.7
40대	84.6	33.0	60.3	61.2	61.1	41.9
50대	81.2	39.5	49.6	62.7	64.0	40.9
60대	81.0	45.8	53.4	63.6	63.7	43.9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 동아시아 국가는 국제연합과 불편한,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때 ‘미국의 거수기 라는 평가를 받던 국제연합과 사회주의국가로서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한국에서도 진보 진영은 분단정부의 수립과 냉전체제의 지속에서 국제연합의 역할과 그 배후의 미국 헤게모니에 대해 의혹과 부정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평가는 패전 이후 미군정의 실시와 이른바 ‘평화헌법’의 채택과정에서 국제연합에 대한 일본에서 일부 지식인의 의식에도 잠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는 예컨대 일본의 경우 국제무대에서 다국적군이나 평화유지 활동 등을 통한 국제기구로서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해 혹자는 제도화된 권력과 공식적 권위에 대한 신뢰가 전통적으로 강하던 유교문화권의 특성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최근 급격하게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높은 미국에 대한 친근감이<sup>14)</sup>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미국에 대한 반감과 그로 인한 반사이익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

의 여부는 불명확하다.

국제화의 지표는 환경오염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협의(international agreement)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통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 잉글하트에 의하면 이 설문은 세속적 합리적 가치와 대비되는 전통적 가치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5)</sup> 다음의 <표 9>는 그 결과를 보인 것인데, 표에서 보듯이 환경문제의 해결에서 국제적 협의를 중요시하지 않는 전통적 가치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전적 찬성과 찬성을 포함 73.7%). 반면에 서독은 찬성(전적 찬성 포함)의 비율이 32.9%로 가장 낮아서 세속적 합리적 가치가 지배적인 나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 비율은 45.3%로 비교적 낮아서 합리적 가치가 우세한 편인데,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대만은 60%에 약간 못 미쳐 전통적 가치가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조사문항은 환경오염의 문제에서 세속적 합리적 가치가 우세한 나라의 경우 국제적 협약을 통한 해결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대외적 개방성의 정도나 국제인식, 또는 민족주의적 정향 등의 여러 쟁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협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경우 국제인식이나 대외적 개방성에서 폐쇄적이고 경직된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혹

14)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관계를 반영해 미국에 대한 친근감이나 신뢰감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설문의 구조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계열의 비교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해석에서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199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국민생활과 대외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 제3차 한·일 공동여론조사』 [1990], 34~36쪽) 미국에 대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4% 였는데, 이는 1984년의 70%, 1988년의 37%에 비하면 현저하게 감소한 비율이다. 같은 시기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미국에 대해 호감이 간다(‘아주 호감이 간다’와 ‘매우 호감이 간다’ 포함)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1989년에는 36.7%, 1990년에는 38.7% 였으며(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전환기의 한국사회: '90 국민의식 조사연구』 [1991], 48~49쪽)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36.1%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2년 일류국가를 향한 국민의식조사』 [2002], 2~3쪽). 이와 같이 시계열로 보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교한 선호도에서 미국은 거의 대부분 1위를 차지해 왔다. 예컨대 위의 사회과학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미국이 좋다고 한 응답자가 24%였던 것에 반해 일본은 5%, 소련 8%, 중국 11%, 북한 12%에 지나지 않았으며,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일본이 13.2%, 소련이 35.8%, 중국이 36.7%, 북한이 62.5% 였다

15) Ronald Inglehart and Wayne E. Baker, *op.cit.*, p. 26.

&lt;표 9&gt; 자국의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협의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전적 찬성	179 (14.4)	80 (11.4)	184 (15.8)	71 (10.4)	173 (12.4)	75 (7.7)
찬성	559 (44.9)	330 (46.9)	675 (57.9)	303 (44.2)	460 (32.9)	245 (25.2)
반대	401 (32.2)	243 (34.6)	247 (21.2)	237 (34.6)	535 (38.2)	393 (40.4)
전적 반대	107 (8.6)	50 (7.1)	60 (5.2)	75 (10.9)	231 (16.5)	260 (26.7)
계	1246(100.0)	703(100.0)	1166(100.0)	686(100.0)	1399(100.0)	973(100.0)

은 중국의 경우 국제협약의 불필요에 대한 높은 지지는 어떤 면에서는 중국 특유의 패권주의와 대외적 자주노선이 일정한 형태로 투영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각국에서의 세대에 따른 의견의 차이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10>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20대와 50대가 거의 20%의 차이가 나는 것을 비롯해 일본과 독일에서도 거의 이와 비슷한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은 20대와 60대의 격차가 가장 커서 거의 20%에 달하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지 중국에서만 세대간 격차가 미미하게 나타난 것은 사회주의적 폐쇄체제와 교육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젊은 세대의 국제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의 특성으로 보아 이들 국가에서 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lt;표 10&gt; 환경문제가 국제적 협의없이 해결될 수 있다(%)

연령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20대	50.9	70.0	42.9	35.4	25.5
30대	59.3	76.4	45.6	45.1	29.6
40대	65.3	73.8	56.6	43.9	37.1
50대	70.6	74.4	65.0	42.5	43.3
60대	59.4	76.7	61.0	52.4	40.7



#### IV. 개방성과 타자의식

이 장에서는 대외적 개방성과 외국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 몇몇 의견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먼저 다음의 <표 11>은 외국상품의 수입과 자국내 판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sup>16)</sup> 표에서 보듯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국가는 일본으로 응답자의 72% 정도가 외국상품의 수입에 동의하고 있다. 다음이 독일의 57%이고 이어서 대만이 45% 정도이고 다음으로 한국이 39%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폐쇄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중국으로 응답자 4명 중 3명 꼴로 엄격한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표 11> 외국상품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의견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수입	435 (38.9)	337 (45.5)	309 (24.1)	669 (71.7)	396 (27.1)	552 (57.1)
규제	684 (61.1)	403 (54.5)	971 (75.9)	264 (28.3)	1068 (73.0)	415 (42.9)
계	1119(100.0)	740(100.0)	1280(100.0)	933(100.0)	1464(100.0)	967(100.0)

주목되는 것은 미국 역시 중국에 못지 않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의 보루로서 미국이 전세계에 개방과 자유무역의 열렬한 전도사 역할을 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의견의 우세는 일반의 예상과 어긋나는 것으로 자기모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항은 위에서 말한 환경문제에서의 국제규약의 불필요와 함께 전통적 가치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이기도 하다.<sup>17)</sup>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독일과 아울러 일본은 그와 반대되는 세속적·합리적 가치에 대한 지지가 높은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는 일본에서는 외국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거의 외면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시장은 세계상품의 진열대 역할을 하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

16) 표에서의 ‘수입’은 “소비자가 원한다면 외국상품을 수입해도 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을, ‘규제’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상품의 판매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한다

17) 환경오염에 대한 문항의 전통적 가치와의 상관관계는 0.56이었으며 외국상품에 대한 규제는 이보다 약간 높은 0.63이었다. Ronald Inglehart and Wayne E. Baker, *op.cit.*, p. 26 참조.

면 의견과 실제 행위 사이에는 늘 일정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새겨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 문항이 포함된 선행조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산품애용에 대한 1993년의 조사를 보면 외국제품의 구매의사에 찬성한 의견은 17.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sup>18)</sup> 비슷한 질문은 1996년의 조사에서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산품애용에 대한 태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같은 해 한·중·일 3국의 의식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 바 있었다.<sup>19)</sup> 2001년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좀더 일반적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성의 비율은 43.8%, 중간이 34.5%,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21.6%로 좀더 개방된 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0)</sup>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 문제와 관련된 의견의 변화는 점차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외국 노동자와 관련한 몇몇 조사 항목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다음의 <표 12>는 응답자가 이웃으로 삼고 싶은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

18)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에서 1) 가격이 비싸더라도 외국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0%, 2) 가격이 같다면 외국제품을 사겠다는 경우는 16.2%, 3) 가격이 같다면 국산품을 사겠다는 비율이 42.2%, 4) 어떠한 경우라도 국산품을 사겠다는 응답이 40.4%로 국산품의 구매에 대한 지지가 82.6%로 매우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한국사회: 오늘과 내일 - 21 세기의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연구』(1993), 27쪽 참조.

19) 전자의 조사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산품을 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결과는 1) 매우 반대(5.3%), 2) 반대하는 편(10.1%), 3) 그저 그렇다(24.3%), 4) 찬성하는 편(30.7%), 5) 매우 찬성(29.3%)으로 3)의 ‘그저 그렇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1993년의 조사와 비교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4)와 5)를 합한 찬성의 비율이 60.0%로 1993년의 82.6%에 비하면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환기 한국사회 국민 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 통계표 및 질문지』 [1996], 276~277쪽). 후자의 조사는 외국 상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저항감을 느끼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에 대한 응답은 1) 아주 심하게 느낀다, 2) 약간 느낀다, 3) 별로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4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1)과 2)의 저항감을 느끼는 경우를 보면 서울이 69%로 가장 강했고, 다음이 동경의 17%, 북경의 14%였다(한국방송공사·연세대학교, 『한국 중국 일본 국민의식조사 백서』 [1996], 122, 439쪽). 후자의 조사에서 북경의 낮은 비율은 위의 <표 11>의 조사결과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응답자의 지역적 분포(중국 전역 대 북경)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불명확하다.

20)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앞의 책(2002), 7 쪽

과를 보인 것이다.<sup>21)</sup> 이 표를 보면 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다는 사람의 비율은 한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거의 40%에 달하고 있다. 다음이 대만과 중국으로 20%대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독일은 각각 9%대와 4%대에 달하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일본의 조사에서는 이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잉글하트에 의하면 이 문항은 생존(survival)가치 대 자기표출(self-expression)의 가치를 구분하는 유용한 지표의 하나이지만, <표 12>에서의 긍정과 자기표출 가치와의 높은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문항에서 미국이나 독일은 동아시아의 한국이나 대만, 중국보다 오히려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2)</sup>

<표 12> 외국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습니까?

구분	한국	대만	중국	미국	독일
긍정	481 (39.6)	356 (24.8)	304 (20.3)	147 (9.5)	44 (4.3)
부정	735 (60.4)	1081 (75.2)	1196 (79.7)	1395 (90.5)	973 (95.7)
계	1216(100.0)	1437(100.0)	1500(100.0)	1542(100.0)	1017(100.0)

1990년대 이후 동남아 등지의 이주노동자와 중국 조선족의 이입이 증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나 인격적 모멸 등이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고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GO) 등은 그 실태를 지적하고 또 비판해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화교가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든지, 지구상에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지적과 아울러 이러한 사실들은 흔히 한국 민족주의의 폐쇄성을 입증하는 생생한 전거로 인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위의 표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 등의 서구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소의 의외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21) 한국의 조사에서는 ‘외국 노동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민자/외국노동자(immigrants/foreign workers)이다  
 22) 이웃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는 동성연애자, 에이즈 환자와 함께 외집단지표(Outgroup index)를 구성하면서, 생존가치와 높은 상관관계(0.81)를 갖는다. Ronald Inglehart and Wayne E. Baker, *op.cit.*, p. 27.

또한 세대별로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는 젊은 세대일수록 외국 노동자에 대한 관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표 13>에서 보듯이 외국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다는 의견의 비율은 60대가 28% 정도를 기록한 것에 비해 세대가 내려올수록 비율이 높아져서 20대에서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46.4%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60대를 논외로 한다면 대만 역시 한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사례도 적어도 40대 이하만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적다고는 하더라도 젊은 세대일수록 외국 노동자에 대한 관용의 의견이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표 13> 외국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다(%)

연령	한국	대만	중국	미국	독일
20대	46.4	27.3	17.4	7.5	4.1
30대	43.0	23.7	20.9	8.0	3.2
40대	33.7	19.6	21.5	8.5	2.9
50대	29.6	16.9	22.4	10.8	7.9
60대	28.1	29.2	21.7	11.9	5.3

이와 대조되는 것이 미국의 경우인데, 60대에서 긍정적 답변자의 비율이 11.9%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세대가 내려올수록 비율이 낮아져서 20대에서는 불과 7.5%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외국 노동자에 대한 관용의 태도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시 60대를 제외한다면 미

- 23) 이를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의 응답자들은 그러한 물음을 실제 상황에 자신의 입장을 대입해 응답하기보다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비실제적으로(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물음이라는 점에서)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서구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그것을 의견이나 가치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만이나 중국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대중적 차원에서 일상적 대면이 폭넓게 확산될 정도로 아직은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관계의 역사적 경험 역시 1990년대 이래로 비교적 짧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동일한 중화문명권에 속하는 대만과 중국이 한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대조적인 두 유형의 각각에 속한다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묻는 다음의 문항은 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24)</sup> <표 14>에서 보듯이 외국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독일이 가장 높아서 71.2%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한국의 53.9%, 일본 49.6%, 중국 44.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미국이 37.5%, 대만이 34.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1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입국 자유화	50 (4.4)	21 (2.9)	89 (6.7)	42 (4.4)	80 (5.4)	136 (13.8)
입국 허가	564 (49.5)	234 (31.9)	496 (37.3)	434 (45.2)	477 (32.1)	567 (57.4)
숫자 제한	417 (36.6)	425 (57.9)	600 (45.2)	422 (44.0)	796 (53.6)	260 (26.3)
입국 불허	108 (9.5)	54 (7.4)	144 (10.8)	62 (6.5)	131 (8.8)	25 (2.5)
계	1246(100.0)	734(100.0)	1329(100.0)	960(100.0)	1484(100.0)	988(100.0)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독일의 경우인데 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그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의견의 차이는 이방인을 이웃으로 삼고 싶다는 개인적 차원과 그에 대한 국가정책이라는 공공적 차원의 쟁점을 철저하게 분리해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국가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해 사고하는 방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과 사를 분리해 생각하는 의식의 영

24)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으로 1) 입국의 완전 자유화, 2) 일거리가 있는 한 입국을 허가, 3) 입국노동자 숫자를 엄격히 제한, 4) 외국 노동자의 입국 불허라는 일종의 4 점 척도를 제시한 결과이다. 여기서 1)과 2)를 외국 노동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로 분류한다면 3) 과 4) 는 그 반대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위의 <표 12>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반해 한국<sup>25)</sup>이나 일본 등에서 외부자에 대한 정부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주노동자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 그리고 이주의 역사 등이 특정 사회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동양적 특성의 하나로 서 역사적으로 외부자에 관용적 태도를 지녀온 전통의 영향을 들지도 모르겠다. 또는 근대화의 영향으로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공과 사를 분리하는 서구적 사고방식이 그 사회 나름의 독특한 양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보면 위의 <표 13>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표 15>에서 보듯이<sup>26)</sup> 나라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보아 젊은 세대일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이러한 경향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경우이고, 한국과 미국은 세대에 따라 다소의 기복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독일은 세대간의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표 15>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조치(%)

연령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독일
20대	54.6	47.4	59.2	42.7	73.6
30대	55.3	45.9	54.2	43.0	72.5
40대	57.2	43.2	50.6	38.5	68.2
50대	47.5	39.6	42.1	40.6	69.1
60대	46.3	35.7	41.0	29.2	69.1

25) 참고로 질문의 내용과 구성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의 한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항목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외국인의 국내거주를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 경우가 35.7%, 반대가 26.6%, 중간이 37.6%였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즉 거의 절반에 이르는 47.1%의 응답자가 이 의견에 찬성했으며, 반대가 20.3%, 중간이 32.6%였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앞의 책(2002), 6 쪽

26) 위의 <표 14>에서 1)의 입국 자유화와 2)의 입국 허가를 합한 수치의 비율이다

대체적인 추세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성이나 타자의식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문항은 ‘일자리가 귀할 때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결과이다.<sup>27)</sup> 다음의 <표 16>에서 보듯이 이 의견에 대해 가장 찬성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만과 한국으로 90% 정도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가 자국민의 우선 고용을 찬성하고 있다. 중국은 이보다 덜하기는 하지만 3/4 이상이 이에 찬성하는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비율이 다소 떨어져서 60%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반대의 비율을 보면 미국이 30%를 조금 넘는 반면 일본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자국민의 우선 고용에 대한 찬성의 비율은 독일에서 가장 낮아 43%에 지나지 않으며 반대의 비율도 가장 높아 46.6%에 이르고 있다.

<표 16> 일자리가 귀할 때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찬성	1118 (89.7)	1300 (90.2)	1100 (77.5)	589 (61.9)	902 (60.3)	430 (43.0)
중립	93 (7.5)	95 (6.6)	145 (10.2)	268 (28.2)	127 (8.5)	105 (10.5)
반대	35 (2.8)	47 (3.3)	174 (12.3)	94 (9.9)	467 (31.2)	466 (46.6)
계	1246(100.0)	1442(100.0)	1419(100.0)	9516(100.0)	1496(100.0)	1001(100.0)

이와 같이 찬성과 반대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자국민의 우선 고용에 대해 가장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경우는 독일이고, 미국 역시 찬성의 비율에서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의 비율이 높은 사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일본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경우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구권인 미국과 독일이 각각 서로 구분되는 두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구 국가들의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우선 이러한 차이는 규범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이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규범적 사고의 수준에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

27) 여기서 외국인은 원문에서는 이주자들(immigrants)로 되어 있다

는 경우에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와 의식의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규범적인 대답만을 들을 수 있어서 응답자들의 실질적인 태도와 행위를 추론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위의 <표 16>의 질문을 <표 12> 및 <표 14>의 문항과 비교해 보면, 자국민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표 14>와는 다르지만, 공작 생산 영역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맥락이 통하는 바가 있다. <표 12>와는 자신이 개입되어 타자의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적/소비 영역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자신/자국민이 개입하면서 타자의식이 발현된 상태에서 생산의 영역에 해당되는 쟁점에 대해 응답자가 가장 폐쇄적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28)</sup> 결국 대자적 타자가 명백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생존적 조건에 노출된 경우에 타자에 대한 폐쇄성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반대의 조건 즉 자아가 개입하지 않으면서 생존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우는 타자에 대한 개방성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의 분석은 동양과 서양이 상호배제적인 이분적 개념에 조응한다는 일반적 통념이 지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이고 있다. 전통과 기술의 양자택일에서 동양과 서양이 각각 그에 일반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으며 거꾸로 예컨대 미국에서 전통에 대한 높은 지지와 중국에서 기술에 대한 압도적 강조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나 대인관계에서의 태도, 그리고 경쟁에 대한 의견

28) 후자와 관련해 조금 부연하자면 한국과 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뒤늦은 상태에서 생존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은 상대적으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이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는 하더라도 높은 대외의존도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성취한 부의 취약성에 대한 자각이 상대적으로 경직된 반응을 야기했을 수도 있다.



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아울러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일하고 통합된 전체로서 파악하려는 경향도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경험적 결과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의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내부에 다양한 의견과 가치의 차이와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내부의 이러한 차이는 때로는 동서양의 구별을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뚜렷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화와 국제주의로 포괄될 수 있는 다른 조사 항목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자신이 소속감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지리적 범위나 국제연합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제적 협의를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들 질문은 각 국가에서 대외적 개방성의 정도, 국제주의나 민족주의의 정향 등을 보이는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는 외국 상품이나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의견 역시 이러한 쟁점을 반영한다

이러한 분석은 동양과 서양을 서로 대립하는 이분법적 인식의 틀로 이해하거나, 혹은 동아시아가 공동의 가치나 정향을 가진 단일한 실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각 국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이고 있다. 각각의 국가나 사회는 역사적 전통, 외래 문물이나 사상과의 상호작용,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도세력과 국가의 전략 등에 의해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동양과 서양, 그리고 동아시아에 대한 일반화된 의견과 ‘신화’는 재해석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경일, 『동아시아와 세계체제 이론』,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화과학사, 1998.
- 김경일, 『한국의 근대화와 사회의식의 변화』, 『한국일반사회조사- 이론과 방법』,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47 ~99 쪽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국민생활과 대외관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 제3차 한·일 공동 여론조사』, 1990.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환기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 통계표 및 질 문지』, 1996.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2년 일류국가를 향한 국민의식조사』, 2002.
-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전환기의 한국사회: '89 국민의식조사』, 1990.
-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전환기의 한국사회: '90 국민의식 조사연구』, 1991.
- 서울대학교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 『한국사회: 오늘과 내일 - 21 세기의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조사 연구』, 1993.
- 어수영, 『가치변화와 삶과 정치 - 한국·일본·미국·멕시코 4 개국 비교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은기수, 「동서양 탈물질적 가치관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1999.
- 이문용 외, 『탈현대시대 한국인의 의식과 관행 시민사회·일상생활·사회적 관계의 비공식성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지원과제 보고서, 2000.
-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편, 『동아시아, 문명과 시각』,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5.
-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 한국방송공사·연세대학교, 『한국 중국 일본 국민의식조사백서』, 1996.
- Inglehart, Ronald, "Globalization and Postmodern Values," *The Washington Quarterly*, 23-1 (2000), pp. 215~228.
- Inglehart, Ronald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2000), pp. 19~51.

#### 주요어

세계가치관조사, 동양과 서양, 동아시아, 세계화, 국제주의, 타자의식, 대외인식, 개방성

<부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성	남성	49.0	49.2	53.3	49.3	49.7	45.5
	여성	51.0	50.8	46.7	50.7	50.3	54.5
연령	20대	32.0	19.0	28.7	17.8	15.7	23.5
	30대	25.9	33.4	28.4	18.3	22.6	28.5
	40대	21.3	25.2	22.0	27.4	18.9	18.2
	50대	14.4	10.6	10.7	7.6	11.6	12.5
	60대 이상	6.3	11.8	10.1	18.8	31.1	17.3
교육 수준	초등	23.6	24.2	39.6	-	13.5	31.1
	중등	39.9	62.1	52.3	-	46.0	42.3
	대학	36.6	12.7	8.0	-	40.5	26.6
소득	하층	7.5	22.4	11.3	21.6	6.3	8.7
	하상층	24.1	19.4	27.5	25.3	19.3	23.7
	중하층	30.3	16.0	42.8	21.9	19.6	29.4
	중상층	26.7	17.5	16.6	15.8	28.6	25.0
	상층	11.4	24.7	1.8	15.4	28.1	13.2
주관적 계층	하층	6.6	4.8	23.9	6.5	2.8	1.5
	하상층	13.2	29.9	36.6	25.7	35.1	18.3
	중하층	49.9	29.4	21.8	51.9	27.3	27.3
	중상 이상	30.4	35.9	17.6	15.9	34.8	40.8
직업	전문관리직	30.3	27.8	10.7	21.4	34.5	9.6
	사무직	14.8	28.4	7.4	35.4	24.2	33.1
	노동자	9.4	22.0	16.6	17.6	29.8	11.2
	농민노무직	9.5	10.7	58.5	9.5	12.7	1.8
	무직	35.9a	8.0	6.9	6.2	2.8	44.2

주a) 무직의 비율이 높은 것은 표집 과정에서 주부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